

육용 종계 감축 사업 시작 닭고기 업계 불황타개를 위한 극약처방 … 종계사육농가 적극 동참해야

편집부

지난 2월, 본회와 양계협회는 수차례 걸친 난상 회의 끝에 육용 종계 감축사업을 추진키로 최종 합의했다.

회의 과정에서 종계감축 도태기준일을 정하는 부분을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지만 막판 세부사항에 대해 극적합의가 이뤄져,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가운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1월 육용 종계마릿수는 약 660만수로 전년 동월 대비 4.2% 증가한 상황으로 이 물량 중 이번 감축을 통해 100만수를 도태하게 된다. 약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이 자금은 닭고기자조금에서 사용된다.

사업에 참여한 종계사육농가는 정부의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가의 30% 이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본 감축사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부 시행지침을 위반하는 농가 및 계열화사업자는 축산계열화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축 및 계란 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등 관련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시 패널티를 부여받거나 지원에서 제외된다.

본회 회원사들은 앞장서 이번 감축 사업에 임하고 있다. 3월 7일 현재 본회는 486,100수의 종계 중 125,624수를 도태한 상황이다.

이번 종계감축사업은 공급과잉과 소비위축 등으로 지난해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큰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도 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불황타개를 위해 범업계 차원에서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한마음으로 사업이 착수됐다. 이런 업계의 강한 의지에 정부에서도 팔을 걷어부치고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감축사업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계육협회, 양계협회 두 사업시행기관이 '불황타개'라는 큰 울타리에서 합의한 만큼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종계사육농가들이 육용종계 도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 ☞